

광주 사립外高 설립 '청신호'

학교법인 3곳·독지가 1명 적극 관심

5월말까지 희망자 공모

7월20일 선정 발표키로

오는 2008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중인 광주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본보 2월15일자>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시내 3개 학교법인과 독지가 1명이 사립 외국어고 설립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3개 학교법인인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설립한 학교법인 죽호학원(금호고·중앙여고·금과공고·중앙중) ▲정형래 한국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광주지회장이 창설한 학

교법인 보문학숙(보문고) ▲지역 중견건설사인 남화토건이 세운 학교법인 유당학원(서석고·서석중) 등이 다.

시교육청은 오는 5월 말까지 외교 설립 희망자를 공모한 후, 가칭 '사립 외국어고 설립 적격 심사위원회'를 구성 ▲설립 제안서와 육영 의지 ▲재정투자 계획 ▲투자 규모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오는 7월 20일까지 설립 학교법인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학교법인 수는 30명선으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정원의 10~20%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다른 지역 사립 외국어고 운영 현황을 참고해 적격심사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김원본 교육감이 '다른 지역에 비해 외국어고 설립 추진이 늦었지만 전국 최고 수준의 외국어고를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학교 운영에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학교법인이 우선 고려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법인 설립 법안에는 우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행정지원이 이뤄지며 기숙사 등 주요 시설도 광주시와 협의, 지원한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황사또 온다

中 네이멍구서 발생...오늘 내습 먼지농도 약해 큰 피해 없을 듯

12일 황사가 우리나라에 또 다시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농도가 약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10면>

기상청은 "중국 네이멍구(內蒙古) 사막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가 12일 우리나라에 내습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그러나 한·중 황사관측소가 위치한 네이멍구 주일화(朱日和) 지역 미세먼지(PM-10) 농도가 2천~3천 $\mu\text{g}/\text{m}^3$ (1 μg 는 100만분의 1g)으로 전남보다 약화돼 지난 8일과 같은 '슈퍼급 황사'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는 북서풍이 불고 지상 기압의 흐름이 서서히 남동진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가 내려 황사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기상청은 덧붙였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네이멍구에서 발생한 황사가 동쪽으로 전진하다가 서풍을 만날 경우 우리나라에, 저기압으로 강한 남서풍을 만나면 북한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현재 기류 변화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4월 12일 (음 3월 15일) ◇전국날씨

지역	날씨	기온
서울	흐림	11~22℃
부산	흐림	10~19℃
대구	흐림	13~19℃
전주	흐림	10~19℃
광주	흐림	10~19℃
제주	흐림	11~21℃
경상	흐림	10~19℃
충청	흐림	9~21℃
강원	흐림	10~19℃
충남	흐림	10~19℃
충북	흐림	10~19℃
전남	흐림	9~19℃
전북	흐림	10~22℃
경북	흐림	10~22℃
강원	흐림	9~19℃
충남	흐림	10~20℃
충북	흐림	11~21℃
전남	흐림	9~22℃
전북	흐림	10~20℃

서울날씨: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5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5~3.0m
남해날씨: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5m
목포 밀물 < 01:27 썰물 < 06:47
목포 밀물 < 13:40 썰물 < 19:02
여수 밀물 < 08:31 썰물 < 02:21
여수 밀물 < 20:51 썰물 < 14:31

▲해돋이 06:05 ▲해질 19:02 ▲달돋이 17:47 ▲달질 05:1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3(목)	14(금)	15(토)	16(일)	17(월)	18(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10/15	5/19	5/17	8/17	4/20	6/22

저소득층 자녀 점심지원 크게 줄어

관련예산 감소...광주 2,894명이나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학기 중 중식(점심)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자녀가 지난해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교조 광주지부에 따르면 올 중식 지원 대상 학생은 기초수급대상자 자녀나 편부·편모 자녀 등 1순위 1만8천356명,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이상(4인가구 기준 월 113만6천원) 120% 이하인 잠재 빈곤층인 차상위계층 등 2순위 657명 등 1만9천913명으로 지난해의 2만1천907명보다 2천894명이 줄었다.

1순위 지원 대상의 경우 기초수급대상자 자녀와 편부·편모자녀가 올해 각각 533명과 1천155명 늘면서 전체적으로 803명이 늘어난 데 반해 2순위 지원 대상은 657명으로 지난해

의 4천354명 보다 무려 3천697명이 감소했다. 올해 2순위 지원 대상이 크게 준 것은 1순위 지원 대상이 늘어난 데다, 지난해 70억7천여만원이었던 관련 예산이 올해 69억여원으로 1억7천만원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전교조 측은 설명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경기 불황으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 더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육청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보다 적극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중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전남대 총장 불신임 투표

전남대 총학생회는 국립대 법안화 등 현안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학교에 반발, 11일 강제재 전남대 총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함은 15개 단대에 전부 설치됐으며 투표는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위정량기자 wjw@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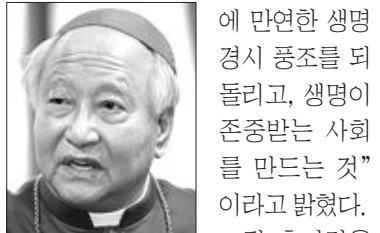
전남대 총학생회는 국립대 법안화 등 현안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학교에 반발, 11일 강제재 전남대 총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함은 15개 단대에 전부 설치됐으며 투표는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위정량기자 wjw@kwangju.co.kr

“성체성사 통해 부활의 신비 참여를”

정진석추기경 부활절메시지

정진석 추기경(서울대교구장·사진)은 오는 16일 부활대축일을 맞이해 '성체성사(聖體聖事)의 삶을 통해 부활의 신비에 참여합시다'라는 내용의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했다.

정 추기경은 11일 발표한 메시지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체성사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생명 존중의 삶을 사는 것이며 우리 주변



에 만연한 생명 경시 풍조를 되돌리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추기경은 "이를 위해 나태, 안락사, 살인 등 생명 파괴와 행위와 인간 신체를 이용한 비윤리적인 실험 등은 단호히 배격하도록 하자"며 "헌혈·골수기증·사후

장기기증·국내 입양운동 등을 더 활발하게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대교구 최창무 대주교도 이날 "죽음의 문화가 설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생명의 문화를 선포하고 예수님처럼 죽음의 문화를 극복할 사명을 받았다"며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오해하며 미워하더라도 죄스런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견디며 우리 자신들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곽선정기자 ks@kwangju.co.kr

수입쌀 수송선 여수 입항 진입저지 농민 50명 연행

미국에서 수입되는 쌀을 실은 선박이 11일 여수시 수정동 여수신항에 입항했다.

수입 쌀 수송선박은 홍콩 국적의 1만5천t급 '브라이트 스카이'(Bright Sky)호로 미국산 가공용 쌀 1만5천t을 싣고 이날 오전 8시30분 여수신항

제1부두에 접안, 검역 및 세관의 통관 절차를 밟고 있다.

15일간 계속될 하역작업에는 하루 80명의 인부와 차량 70대가 동원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밤샘 전막 농성을 벌인 후 하역작업을 저지하기 위해 여수신항 1부두 진입을 시도하던 광주·전남 농민연대 소속 농민 50여명을 연행, 조사 중이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유전자 감식 덕분에...

정신지체 10대 실종 두달만에 가족품으로

중증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10대 경찰의 유전자 감식 덕분에 실종 두달만에 가족 품에 안겼다. 11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북 남원시 향교동에서 실종된 뒤 정신지체장애인 보호시설로 인계된 신모(17·정신지체 1급)군을 DNA 대조를 통해 지난 9일 무사히 귀가시켰다는 것이다.

신군이 가족과 떨어진 것은 지난 2월21일. 아무런 말없이 집을 나선 신군은 이곳저곳을 떠돌다 이를 후 레군 버스터미널에서 공무원에게 발견됐다. 1급 장애를 앓고 있는 신군은 말이 통하지 않고 자신의 집을 찾을 수도 없어 답답한 한 정신지체장애인 보호시설로 인계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가족들은 신군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찾지 못하고 결국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그러던 중 전남경찰청 실종아동추적반이 보호시설 점검을 위해 신군이 생활하고 있는 곳을 찾았고, 보호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DNA를 채취했다. 신군의 DNA는 한국복지재단에 맡겨졌고, 2개월 뒤 실종자 부모로 판단되는 DNA가 발견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어머니 최모(47)씨는 "말 못하는 장애 아들이 죽은 줄만 알고 시체라도 찾았으면 하는 마음에 유전자 감사를 했는데 이렇게 찾게 돼 믿기지 않고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교사 수업시간 단축

수석교사제 도입 검토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맹회장은 11일 오는 2014년까지 교원의 주당수업시간을 초등학교 20시간, 중학교 18시간, 고

교 16시간으로 감축키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의 전국 확대 실시에 앞서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교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수석교사제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연내에 추진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당선확신!!

신기발달, 선거전략, 원로작성, 유세방법, TV연설

한국정치지도자연수원

02-636-6533-4
017-603-6524

최첨단 시설이 겸비된 사무실을 저렴하게 빌려드립니다

연우개발 행정관리사무소 010-471-3100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담양한과에서

시제·제사상음 차려드립니다

담양한과

061-383-8283

경동 전기보일러·온수기

보일러+온수기(16평기준) 148만원

삼우상사

061-278-4242
272-8262
624-6262